

진단 찬불가 '저작권'

얼마 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제주도 한 사찰의 합창단은 모 음악협회가 발간한 찬불가 악보집을 일괄적으로 구매해 공연을 준비했다. 그러나 합창단이 사용하는 찬불가 악보집은 무게가 상당했다. 그래서 합창단원 가운데 한 보살은 공연준비에 필요한 찬불가 몇 곡의 악보를 복사했고, 그 복사본을 지니고 공연준비에 일하게 됐다.

찬불가 악보집을 발간한 모 음악협회측은 이에 대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문제삼았다. 악보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넘겨졌고, 위원회는 "악보집을 구매한 당사자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내용의 일부를 복사한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법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합창단과 협회측의 저작권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닌 듯하다. 불교음악계 전반에 저작권법 적용 범위와 대상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을 적용시키기 이전에 포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찬불가의 특수성을 헤아려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교음악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본다.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다. 불교음악협회 황학현 사무처장은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찬불가 악보나 음반 등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료 등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작비가 많이 드는 악보집을 출간하는 대신 낱장의 악보를 배포하는 등 방법상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비용을 줄인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곧 불교음악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황 사무처장은 "지금껏 그래왔듯 작곡가나 작사자에게 헌정이나 보시만을 요구·강요한다면 음악인들로부터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교음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뻔"이라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저작권 적용이 원활한 포교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작곡가)씨는 "생산된 찬불가를 활용함에 있어 그 목적이 중시돼야 한다"며 "포교나 불교 음악 자료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단 차원에서 저작권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교단에 헌정한 곡이 상당해, 필요한 경우 저작권에 대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불교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저작권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찬불가와 저작권'에 대한 불교계의 정확한 상황판단이다. 현재 저작권법이 불교음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한 불교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강신재 기자 thalshwy@buddhapia.com

사용 목적 따라 '유연한 관계'를

"포교 등 순수목적인데..." VS "임의 사용은 불법... 법절차 존중을"

▽ 불교음악계도 저작권 문제 피해할 수 없다

사찰에서 저작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것은 '악보 사용의 문제'다. 앞서 제시한 제주도 합창단 사례에서는 개인이 악보전집을 구매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료를 직접 복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타인의 자료집을 대여한 후 임의로 몇 곡을 발췌 복사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유에 해당된다. 음성공양을 올리려 위해서라도 반드시 악보집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찬불가를 듣고 활용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 올해 1월 7일 관련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악 저작권자 등과의 협의 없이 그들의 음악을 전송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됐다. '불교음악감상실' 등 찬불가 음악파일을 무료로 들려주던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이제 곡의 일부밖에 들을 수 없다.

찬불가를 응용한 문화상품 고안에도 제동이 걸렸다. 최근 좋은 벗 풍경소리는 100여 곡의 찬불가를 노래방에 서비스하기 위해 노래방 반주 전문업체인 (주)금영 측과 1차적인 합의를 끝냈다. 그러나 소요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7천여 만 원을 저작권협회에 지불해야 할 상황이라 지금 압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 '저작권 준수할 상황 못되거나, 준수할 생각 없거나'

저작권법은 실정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찬

불가는 '포교'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찬불가 저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 지불 문제다. 문화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찬불가 악보나 음원 제공에 대한 요청도 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저작권이라는 글레에 묶여있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이미 생산된 찬불가를 악보나 음반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작곡·작사자에게 개인적인 양해를 구해 노래를 빼오는지(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노래방에 찬불가를 보급하는 과제와 같이 한 곡당 150만원 이상의 거액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경우, 저자에게 '헌정'을 부탁하면서 저작권료도 지출되는 비용의 출력을 줄이려고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문제제기가 없다면 법적인 처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공리'를 내세워 저작권법을 비껴간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가 횡행하면서 명백한 범법 행위까지 행해지고 있다. 저자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작품을 임의대로 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음반이나 서적 등에 사용하거나 또한 임의로 편곡할 계획을 세웠다면, 원작자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그 저자를 알 수 없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법정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교계는 이를 외면했다. 불교음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불교계에서 사용되는 찬불가 악보집의 일부 작품들의 경우 법정허락의 과정을 임의로 생략하고

사용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음악인들의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한 부족한 문화마인드를 지적받기도 한다. 불교음악계 한 관계자는 "몇몇 불교음악가의 경우 저작권협회 회원 등록 과정이 귀찮고 돈이 든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 가운데 일부 작곡가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문제 알아도 답은 못 찾아

'문화포교'의 결실을 막 폐기 시작한 불교계가 '저작권법'의 강풍을 맞기 시작하면서 불교음악계는 좀처럼 일사부재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어느 정도 문제점을 공감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대응

합의 없이 영리적 목적 사용시 위법

저작권료 지불 없어 창작 의욕 저해

종단 차원의 일괄 관리 의견 '설득력'

실태조사·관계자 의견 청취 등 필요



신행·포교를 위해 사용되는 찬불가에 대한 저작권의 보장이 불교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불교계합창단의 공연모습(본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화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허브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www.15440108.com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에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모집: (주)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모집구분: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근무처: 본인 거주지. 문의: 050-5244-0108

스님이 만든 **후불제실사**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8천원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 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본가방: 가로 440 x 세로 350 너비 90 x 끈길이 110. 핸드가방: 가로 235 x 세로 210 x 너비 70. 제조원: 국내(한국산)

특징: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찌르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용이있는 디자인(공주, 불자, 고급지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영철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동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익금은 사찰 건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되어 빈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아까지 100% 반품 가능합니다. * 우물게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하시면 됩니다.

주문전화: 대한불교 법정사 051)507-7555 [계좌번호: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옹장,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음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목측 발바닥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발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발바닥에서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골관절염,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 만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음에 자연적으로 3과로 증과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항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나요?

蔘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양!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고 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 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蔘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정려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 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蔘蔘)을 드시고 탁월한 효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변비가 나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아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천식이 멀어졌다.
- 백혈병이 나아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픈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아졌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자궁 출혈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사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열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시중가 10kg당 40만 원에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1Box(60포: 15만원) 2Box(120포: 25만원)

주소: 강원도 정선군 통천읍 호촌리 323번지
연락처: (033) 563-8292, 562-2165
성명: 심정택 H.P: 011-9242-8292
농협계좌번호: 315024-52-012392 (예금주: 심정택)